

“북녘 가족에게 내 생전 모습 꼭 전해주오”

광주 남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남북 분단으로 70년 넘게 가족들과 생이별 중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광주시 남구는 4일 “남북 간 소통, 교류의 절박함을 알리고 남북 분단으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삶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가족에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이산가족은 462명으로 남구에는 86명이 생존중이다. 생이별이 70년째 이어지면서 현재 생존중인 1세대 이산가족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으로 언제 북녘땅의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지 모르는데다 남북 관

광주 남구, 전국 지자체 첫 이산가족 영상기록 추진...희망자 모집

계 마저 경색돼 상봉을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남구는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절박함을 알리고자 영상제작을 추진키로 했으며, 추후 남북 교류시 북의 가족에게 영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투입, 10분 안팎 분량의 해상도 FULL-HD급 동영상 25편을 오는 7월까지 제작한다.

영상은 이산가족들의 가족이야기와 이별 과정, 분단 이후 이산가족으로서의 삶, 그리고 생전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

하고 싶은 말 등을 담아 제작된다.

영상기록과 소식을 접한 한 이산가족은 “뜻 깊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남구 남북교류협력팀에 감사하다”며 “북에 계신 고모님과 고숙님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영상기록화 사업을 통해 고모님과 고숙님께 하고 싶었던 말을 담아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라도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구는 통일부와 협력해 지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가정에 영상기록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영상제작에 참여 할 이산

가족을 모집 중이다.

안내문을 작성한 뒤, 통일부에서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남구는 영상제작이 완료되면 영상제작에 참여한 이산가족과 이들의 가족 등을 초청해 남구문화회관에서 상영회도 가질 계획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분단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영상기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한반도 통일과 분단의 현실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간보호형 학폭 피해 지원 광주교육청 ‘지·세·움’ 개소

광주에 전국 최초로 주간보호형(통학형)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전담 지원기관인 ‘지·세·움’(지지하기·세워주기·마음의 힘이 움트길)이 4일 옛 지원중학교(동구 소태동) 3층에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 곳은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회 결정으로 학교폭력 피해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이나 일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들이 이용한다. 1~4주 단위로 치유와 일상 복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지·세·움에 장학사 1명과 교사 4명을 배치했다. 초·중등 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지·세·움에 상주하며 학생들을 지원한다. 즉각적인 일시보호뿐만 아니라 학생의 일상 복귀를 위한 상담과 치유지원, 학습지원과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철호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회복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학생·학교 교육 현장에 ‘지·세·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 가정 회복, 그리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호남대 ‘글로벌-H’ 참가자 모집

호남대학교가 재학생들의 해외 취업과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진출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H’ 참가자를 모집한다.

미국 등 영미권 국가 진출을 원하는 4학년을 대상으로한 ‘레벨 업 프로그램’은 ▲1:1 화상 비즈 회화 ▲해외취업 전략 특강 ▲영문이력서 컨설팅 ▲미국 인턴 지원 등을 내용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또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한 ‘일본 취업 원스톱 프로그램’은 ▲일본어 비즈 회화 ▲일본 취업 전략 설명회 ▲일본 문이력서 특강 ▲취업 및 인턴십 지원 등을 내용으로 3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 2회(월·목) 실시된다.

프로젝트 참여 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QR코드 또는 링크(<https://forms.gle/5mp12K4L7kw4KicU7>) 접속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대학일자리센터(062-940-5848)나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코로나 온·오프라인 수업에 성적 불안”

광주시의회, 학생·학부모 설문

‘떨어질까 불안’ 20.0%

‘실제로 떨어져’ 15.2%

‘학교 안 가 여유롭다’ 반응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학교에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성적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풀인사이트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광주지역 초·중·고생 1909명과 학부모 11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19로 학교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이후 생긴 문제점에 대해 학생 37.9%가 ‘생활 리듬이 무너져 학교에 더가기 싫다’를 첫손에 꼽았다.

이어 ‘성적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20.0%), ‘실제로 성적이 떨어졌다’(15.2%), ‘온라인 수업이 적응되지 않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13.3%) 순으로 답했다.

이처럼 성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학생들의 학원 교습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습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생 27.1%, 중학생 29.4%, 고등학생 37.4%였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생 20.9%, 중학생 13.6%, 고등학생 14.8%였다.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초등학교 1~3학년 67.4%, 초등학교 4~6학년 84.0%, 중학생 82.4%, 고등학생 63.9%였다. 주당 학원 평균 교습 시간은 초등학교생 5.5시간, 중학생 6.8시간, 고등학생 8.8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제도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62.5%), ‘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28.3%)는 의견을 비쳤다.

한편 학생들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이후 생긴 긍정적 변화에 대해 56.1%가 ‘등교하지 않아 아침 시간이 여유롭다’를 꼽았다. 이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늘었다’(15.0%),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14.0%) 순으로 답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하보도 갤러리 변신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지하보도가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돼 일반에 공개됐다. ‘바다 쉼터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지하보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교육청-월드비전 결식아동 조식 지원 협약

전남교육청이 4일 청사 5층 비즈니스실에서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결식아동 조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심리정서 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배고픔으로 학업과 성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식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 조성과 대화를 통한 정서지지 및 위기상황 조기 개입 등 지원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

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학생 지원은 선택이 아닌 당연 필수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식아동 조식지원 ‘아침머꼬’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소외계층 학생(교당 10명 내외)에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드비전이 예산을 지원(학교당 945만~1030만원)한다.

도 교육청은 2020년 5개 학교에서 시작한 이 사업을 올해 12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